

## [묵상과 영적성숙]

### ⑦ 묵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강준민 목사 / 1998 / 페이지수: 2

#### 묵상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세상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제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의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이다.

하나님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사 55:2~3)”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요, 영혼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단순히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듣기를 소원해야 한다. 그것은 경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했던 사울 왕을 하나님을 버리셨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라고 한 말을 기억해야 한다.

#### 깨달음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

순종과 듣는 것은 늘 함께 간다. 순종은 신앙의 최고봉이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서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어떤 방법으로 들려주신다는 말인가? 깨달음을 통해서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품어야 한다. 성령님은 그 품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

성령은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20).” 깨달음이 없을 때 존귀한 인간도 짐승과 같이 될 수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사 50:4)”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도 깨우치기 위해서 힘쓰셨다. 열매 맺은 옥토의 특성이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마 13:23).”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보게 된다.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된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으로도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책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분 아닌가!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

### **묵상의 축복은 영적 분별력**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은 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다. 말씀 묵상의 축복은 내면세계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음성과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잡아 복종케 해주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고후 10:5).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수 없이 들려오는 소리를 말씀에 비추어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성령님은 말씀 묵상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아무리 어려운 말씀 앞에서도 성령님은 내가 그것을 깨달도록 인도하셨다.

깨달는 것은 은혜다.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 출처 : 도서출판 두란노**